

1. 21세기 충청권 발전의 여건

1) 지정학적 위치

(1) 국토 공간상의 중심성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지에 위치한 충청권은 북동쪽으로 강원도 및 경상북도와 남쪽으로는 전라북도와 접하여 있으며, 수도권과는 북으로 맞닿아 있다. 즉, 지리적 측면에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국내 최대 시장이 근접해 있으며, 경부축과 호남축이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전국의 각 지역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요충지역이라 할 수 있다.

충청권은 1990년대 이후 수도권의 배후지 역할을 다하던 경기지역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룸에 따라 수도권 기능을 수동적으로 분담하던 시대를 거쳐 능동적으로 나누어 갖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래에 들어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으며, 각종 기간 산업의 충청권 유치로 더욱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은 이러한 추세를 한층 더 촉진하여 충청권의 생활권이 수도권에 편입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쾌적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이 충청권으로 대폭 이동할 전망이다.

(2) 교통·물류의 중심성

충청권내에는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를 비롯하여 육상교통의 기반이 되는 각종 고속도로가 구비되어 있다. 충청권에서 경유·분기하거나 시·종점을 갖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의 회덕 분기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대진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가 각 방향으로 연계되고 있다. 서해안의 주요 항만을 연결하게 될 대전·

2) 사회·경제적 여건

(1) 교육 및 인적자원

대학의 인력 및 시설 2002년 현재 충청권은 대학원생 3만 1,437명, 4년제 대학생 30만 4,871명, 전문대생 11만 8,042명으로 각각 전국의 12.0%, 17.2%, 12.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 시설수로 보면, 2002년 현재 충청권은 대학원이 136개소, 4년제 대학이 27개소, 전문대가 29개소로 각각 전국의 14.4%, 16.5%, 11.9%를 점하고 있다. 이 밖에 2002년 현재 충청권은 4년제 대학이 6,963명, 교육대가 134명, 전문대가 1,514명의 대학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지역별 연구비 및 연구인력 분포 2001년 우리나라 총 연구비의 권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충청권에서 사용된 연구비가 2조 817억원으로 총 연구비의 17.6%를 차지한다. 이는 수도권 6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개발 인력수 기준의 집중도 측면에서도 충청권 종사자수는 4만 1,92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력의 16.0%를 차지하고 있어 영남권 연구인력 16.7%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10-1] 권역별 연구비 및 연구인력 분포 (단위 : 백만원, 명)

지역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연구비 백분율	10,097,148 (62.7%)	2,817,600 (17.6%)	2,592,597 (15.9%)	494,587 (3.1%)	95,658 (0.6%)	35,125 (0.2%)
연구인력수	149,388 (58.6%)	41,920 (16.0%)	43,880 (16.7%)	15,146 (5.8%)	6,318 (2.4%)	1,154 (0.4%)

자료 : 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표 13, P. 40

(2) 충청권 경제구조

경제활동 인구 1990년대 이후 충청권의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186만 5천명에서 1993년 198만 6천명으로 6.49% 증가했으며, 1996년은 2,042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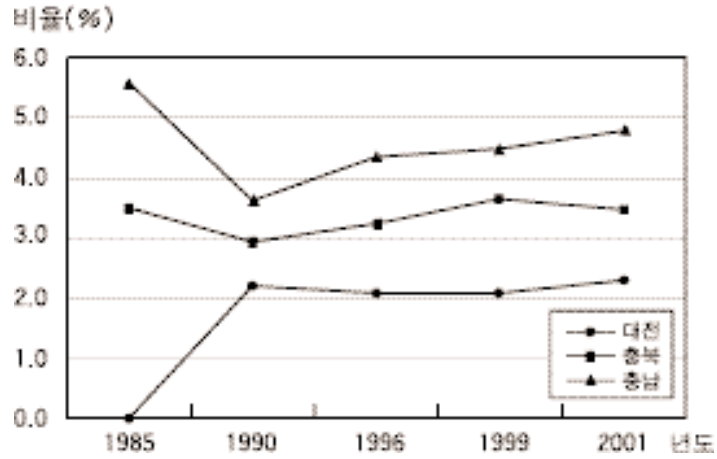
명 그리고 2000년에는 2,198천명으로 늘어 7%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행정단
 위별로 보면 2000년 현재 대전, 충북, 충남의 경제활동인구는 각각 60만 5천명, 67만 5천
 명, 91만 8천명이다. 그러나 같은 해 충청권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1%로서 전국 평균
 60.7%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 10-2] 경제활동인구 변화 (단위 : 천명, %)

연 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율	
		계	취업자	실업자				
1990	충청권	3,160	1,865	1,833	25	1,302	59.0	1.3
	대전	786	442	428	14	344	26.2	3.2
	충북	978	590	585	5	388	60.3	0.8
	충남	1,396	826	820	6	570	59.2	0.7
1993	충청권	3,261	1,986	1,941	44	1,276	60.9	2.2
	대전	817	464	445	19	354	56.8	4.1
	충북	1,011	613	599	13	398	60.6	2.1
	충남	1,433	909	897	12	524	63.4	1.3
1996	충청권	3,370	2,042	2,011	31	1,328	60.6	1.5
	대전	910	514	500	14	397	56.5	2.7
	충북	1,042	621	613	8	421	59.6	1.3
	충남	1,418	907	898	9	510	64.0	1.0
2000	충청권	3,654	2,198	2,131	67	1,456	60.1	3.1
	대전	1,068	605	579	26	463	56.4	4.3
	충북	1,135	675	655	20	460	59.5	3.0
	충남	1,451	918	897	21	533	63.3	2.3
	전국	36,139	21,950	21,061	889	14,189	60.7	4.1

자료 : 지역통계연보, 각 년도

지역내 총생산(GRDP) 대전·충청권의 지역 총생산량은 1985년 전국의 9.3%에서 2001
 년 10.7%로 그 비중이 증대되었다. 그 증가율은 1990년대 이후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
 다. 그러나 1999년의 인구비중이 10.2%임을 고려하면 충청권의 인구당 국내 총생산 비중
 은 전국 대비로 볼 때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전국 부문에서 국방부문과 수입세
 를 제외할 경우, 충청권의 1인당 지역총생산량은 1,174만원으로 전국 평균치 1,128만원을
 상회하게 된다. 그러나 대전시는 898만원으로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그림 10-2〉 전국대비 지역내 총생산(GRDP) 비율의 변화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2001

2. 충청권 미래 발전

1) 국가계획과 충청권의 비전

(1)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충청권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3개 시도는 독자적인 발전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는 첫째 과학기술·지식정보 도시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덕-벤처테크노벨리’를 조성하 며, 둘째 ‘24시간 도시’ 만들기(기존 도심의 재생) 계획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소통 체 계의 과학화’로 선진 교통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로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물류·유통 중심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물류유통·관광배후거점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을 구상 하고 있다. 넷째로는 문화·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격조 높은 문화도시 실현을 위하여, 대전

의 역사 및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기반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다섯째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초록 환경창출로,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먼저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충북’을 위하여 국토종합계획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발전축 설정 및 지역생활권별 주기능의 배분 등 광역지역개발 환경정비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공간구조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로는 내륙 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 조성계획을 들 수 있는데, 특화작목 개발과 첨단과학영농 실현 및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화 추진 등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21세기 첨단 지식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셋째 민족생태공원의 중심지 ‘관광충북’ 구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잠재 자원을 활용하여, 테마와 이미지가 살아있는 충북의 미래형 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지역관광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넷째 전국 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 충북’ 조성에는, 지역공간의 기능별 효율적인 토지이용체계의 확립을 위해 도·농 복합적 토지이용체계를 추진하고 상호 보완적인 토지기능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산업입지체계 구축방안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0-3] 제4차국토종합계획과 시·도별 발전방향

계획명	대전광역시 < 과학기술 중추도시 >	충청북도 < 내륙 신산업 중심지역 >	충청남도 < 역사문화·임해산업· 황해권 교류 중심지역 >
기본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지식정보 도시의 기반을 조성. - 균형적인 도시구조를 형성을 통한 선진도시 기반을 조성. -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물류·유통중심도시를 실현. - 문화·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격조 높은 문화도시를 실현.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정보화 선도지역 형성. - 자연환경과 중원문화의화에 의한 내륙문화관광육성. - 지역발전축 형성과 권역별 주기능 육성. - 중부권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 및 물류시설 확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지역을 창조 - 지역특화산업 및 임해형 신산업지대를 조성 - 도시개발 및 정비에 의한 도·농 통합과 균형개발을 유도. - 통합적 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과 농림어업을 선진화.

자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충청남도는 첫째 문화·관광지역의 창조를 위하여 공주·부여권과 태안 해안소권을 중심으로 백제 문화관광 및 해양관광, 휴양기능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둘째로 지역 특화산업 및 임해형 신산업지대 조성계획으로 아산항(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군장항(기계, 자동차, 산업용 화학, 목재 등) 등을 중심으로 한 임해공업과 내륙공업의 연계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로는 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과 농림어업의 선진화 방안으로 격자형 간선망 구상을 통해 지역간 접근도를 높이고, 남북축(문산·목포, 동두천·충무)과 동서축(대전·영덕, 서산·울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상을 강구하고 있다.

(2) 충청권 공동발전 전략과 공간구상

충청권을 21세기 국가발전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지역간 산업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별 특화와 연계·보완 체계를 구축하며, 광역교통체계의 형성 및 기능적 연계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조정과 광역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및 자원간 관리시책으로 자원의 광역적 이용과 관리체계의 구축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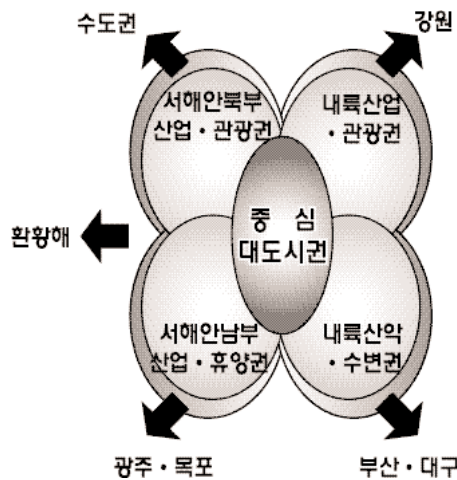
<그림 10-3> 연계개발축

자료 : 국토연구원, 충청권 공동발전방안연구 (1999.12), P.22

전략계획의 기본방향 충청권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 공간으로 육성하며, 충청권내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과 상호 보완·연계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기본 전략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충청권내 다양한 역사, 문화, 경관자원의 특성적 개발을 연계 추진하고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다원적 지역경제기반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내외 거점과의 접근성 개선 및 권역내 거점 지역간 원활한 교통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력 강화 전략도 함께 제시,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공간구상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공간적 통합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대 통합 개발권과 연계 개발축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5대 통합 개발권 첫째, 중심 대도시권(대전광역시, 청주·청원, 연기·논산·공주 일부)은 대전과 청주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 행정 및 중추관리기능, 업무 및 전문서비스기능, 연구개발, 관광중심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도권과 연계된 서해안북부 산업·관광권(아산, 당진, 서산, 천안, 예산, 청양·공주·태안·홍성 일부)은 아산만 광역권과 서해안 신산업지대망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대규모 이전생산기능을 수용하는 동시에 교역·물류기능과 국제해양관광기능을 행하며, 광주·목포와 연계된 서해안 남부 산업·휴양권(보령, 서천, 부여, 태안·홍성·논산 일부)은 군산~장항광역권내 장항지역, 보령신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생산, 물류기능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휴양



<그림 10-4> 통합개발권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강원도와 연계된 내륙산업·관광권(충주, 제천, 음성, 진천, 단양, 괴산 일부)은 수도권 산업기능의 계획적 수용과 수변산악관광, 가족휴양기능을 담당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부산·대구와 연계된 내륙산악·수변권(보은, 옥천, 영동, 괴산·금산 일부)은 속리산, 소백산 등 국립공원과 온천 등 수려한 산악 및 수변경관을 활용하여 산악체험관광·가족휴양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5대 연계개발축과 벨트 북부산업개발축(서산·당진·천안·은성·진천·증평·충주·제천)은 수도권의 산업기능 이전을 체계적으로 수용하여 충청권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분담 및 휴양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해안 신산업·해양휴양관광축(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은 서해안 신산업지대(아산만광역권, 군산·장항광역권)와 해양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생산, 교역 및 휴양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동부산악 및 수변관광축(충주·단양·제천 일부·괴산 수안보, 월악산·보은 속리산·옥천 대청호·영동·금산 일부)에는 수려한 산악 및 수변경관을 토대로 휴양 및 위락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첨단산업·역사문화벨트(단양·충주·청주의 중원문화권·대전 대덕연구단지·공주·부여의 백제문화권)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기술 및 내륙 역사문화권의 연계 개발을 통해 충청권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생산 및 생태영농벨트(당진·홍성·예산·공주·대전·금산)는 대규모 산업단지 배후 및 대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거기능과 생태영농을 통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2) 시도별 발전전략과 충청권의 비전

(1) 대전의 발전전략과 미래상

대전은 2020년 인구 220만명의 도시로 성장시켜 국내·외 위상을 정립하고 중부권 중추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며, 나아가 21세기의 국내·외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발전이념과 미래상을 정립하고 있다. 대전비전 2020의 기본이념으로는 활력성, 효율

성, 미래성, 쾌적성, 형평성, 성숙성, 민주성 등 6가지로 정리되고 있다.

발전기본전략 첫째, 대전의 도시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산업’, ‘지식정보산업’, ‘물류유통산업’ 등 대전 경제 살리기 3대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경제과학도시’로의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둘째,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승용차 중심의 교통에 의한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통해 편리한 교통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미래지향의 비전 있는 도시로서 대전의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서대전의 위상 변화에 걸 맞는 미래지향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대도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기능을 배분, 2개 도심(기존시가지, 둔산지역)과 3개 부도심(유성, 진잠, 신탄진)을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넷째,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여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의 환경권 보장에 최선을 기하는 것이다. 다섯째, 각계 각층 시민의 수요에 알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려운 시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함께 나누어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여섯째, 향토문화를 상품화하여 문화산업으로 승화·발전시키고, 지역성·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개성과 전통이 최대한 확보된 격조 높고 정감 있는 삶의

[표 10-4] 도시개발의 미래상과 발전 전략

기본이념	미래상	발 전 전 략
활력성 (Vitality)	활력있고 경쟁력 있는 경제과학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도시에서 첨단 과학기술도시, 지식정보산업도시, 물류유통거점 도시로의 발전 • 지방성(Locality)의 활성화 및 지역역량을 집결하는 경쟁력 제고
효율성 (Efficiency)	대중교통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대중적 개발에서 미래지향적 장기적 종합적 교통정책으로 전환 • 효율적인 교통망의 확보와 수준 높은 대중 교통서비스의 제공
미래성 (Futurity)	미래지향의 비전있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환경 변화의 능동적 수용, 지방도시에서 국제·세계적 도시로 웅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지역의 특성을 살린 비전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도시기능 및 활동을 수행하는 균형적인 발전도모
쾌적성 (Amenity)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낭비적 사회체제에서 자원 순환적 사회체제로 유도 •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형평성 (Equity)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과 효율이 융합된 지역공동체 조성 • 함께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지향
성숙성 (Maturity)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된 문화시민의 토대 마련 • 삶의 질을 높이는 성숙된 문화·예술의 조화
민주성 (Democracy)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적·자발적·참여적 계획의 실천성을 제고 • 시민에게 발전과 성장의 기회 제공

자료 : 대전광역시, 위대한 대전비전 2020, (2000.1.5), P.31

공간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시민중심의 행정개혁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지향의 선진행정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대전의 과학·연구권역 조성방향 대전의 대덕연구단지(과학·연구권역)는 과학기술과 교육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첨단기술개발, 정보문화창조, 국제교류기능 확충에 이바지하며,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부응한 도시이미지를 창출하며, 전국적인 정보통신망의 거점 지역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이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첨단 산업단지와 공단이 입지한 신탄진 지역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엑스포 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특수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대형 종합영상·음반제작체제의 구축 및 이를 지원할 종합지원센터, 엑스포 스튜디오파크, 미디어랜드 등으로 구성된 대전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엑스포 국제전시구역은 대덕연구단지 및 과학공원의 보완·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 국제테크노마트 등 정보교류 기능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과학기술도시, 교역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 마련되고 있다.



〈그림 10-5〉 과학·연구권역 개발 구상도

자료 : 대전광역시, 위대한 대전비전 2020, (2001.1.5), P.194

권역 내에 공동연구센터, 기술정보센터 등을 설립하여 대학·연구소·산업체간의 긴밀한 협동단계를 강화하며, 생물의약품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생물의약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구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변화 있는 이벤트 공간을 확보하고, 인근의 유성온천, 둔산문예공원 등과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안도 나오고 있으며, 기존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원적 형태의 저밀주택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첨단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주택의 건설을 촉진한다는 계획도 세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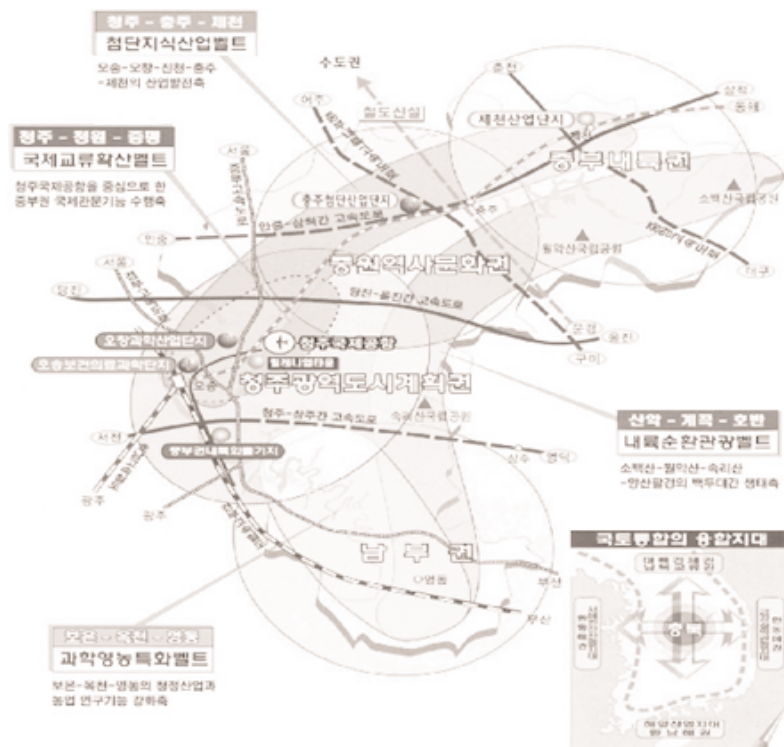
대전의 첨단과학산업 육성 세계적인 벤처산업메카 구축의 일환으로 '대덕-벤처테크노벨리'를 조성하여 2003년까지 1,000여 업체, 목표 기간인 2020년까지는 3,000여 개의 신규 업체를 육성함으로써 세계적인 벤처산업메카로 육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대덕21C' 회원사를 포함하여 벤처산업으로 구분되는 약 250여 개 업체가 활발히 산업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대전에서 창업,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1단계 창업보육협의회 구성(9개 기관, 311실), 산업화 벤처닥터제 운영(5개 분야, 8명 전문가), 창업지원팀 구성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2단계로는 2천평 규모의 벤처타운을 건설하는 사업화 등 산업부지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단계로는 벤처산업, 발명특허박람회, 벤처-테크노엑스포 개최 등을 통한 벤처산업 메카화에 주력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첨단연구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6개 기관 75개 업체가 참여하여 특허출원 등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협력기관 및 지원기관 그리고 참여업체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첨단기술과 지식정보가 생산현장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충남대 소프트웨어 분야, 대전산업대 환경개선형 신소재 분야로서 생명과학산업 분야를 비롯하여 지역협력연구사업(RRC)등의 대상사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2) 충청북도의 발전전략과 미래상

발전기본전략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변화에 따라 2020년까지 각 부문별 계획 지표 및 삶의 질 향상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발전

전략은 광역지역개발 및 환경정비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발전축 설정과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통합 및 교통연계체계와 유통체계 확립, 그리고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역 교류확대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수출진흥 방안을 구상하며, 국제교류사업 확대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륙 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은 특화작목개발과 첨단과학영농 실현, 제조업의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1세기 첨단지식 산업의 육성을 적극 꾀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테마와 이미지가 살아있는 충북의 미래형 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지역관광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림 10-6〉 제3차 충청북도 21C 발전계획도

자료 : 충청북도,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2001.8),도입부

[표 10-5] 장기 발전 지표

구 분	2000년	2010년	2020년
인구(천명)	1,504	1,741	1,823
GRDP(백억)	1,753	2,752	4,333
도로연장(km)	6,011	9,230	12,350
상수도 보급률(%)	72	83	88
주택보급율(%)	90	103	106
의사 1인당인구(명)	1,157	698	608

자료 : 충청북도,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2001.8),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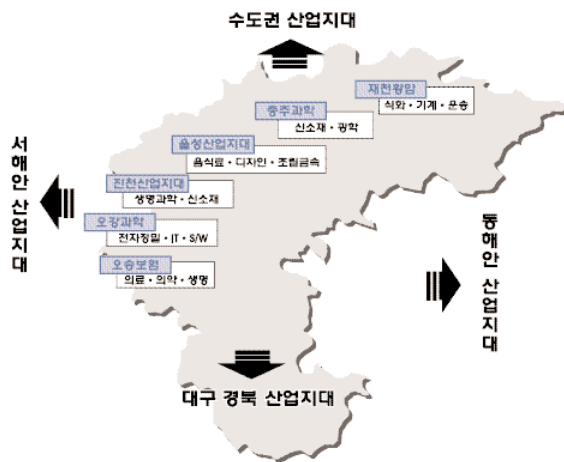
21C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충북 건설 충북지역은 지역 내 최초로 건설이 완료된 오창과학산업단지 외에도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이 조성 중에 있으며 주변에 각종 산업 단지가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과의 산업집적효과의 창출이 핵심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청주권의 경우 정밀화학, 의료, 전자, 통신, 정밀기기 등 고도의 지식과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근 대덕연구단지에는 충북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관된 과학기술인력이 입주해 있다. 또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경기 동남부지역(여주, 이천, 용인)과 구미지역의 전자산업지대와 충주지역의 첨단산업단지 등을 연계할 경우 우리나라 국토중심 내륙 산업벨트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동·서해안 산업경제권과 수도권 및 영남권 등으로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청주·대전권, 중부내륙권(이천·충주·구미, 경기남부·충남북부·충북서북부 지역)간의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권역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권역내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효과와 전·후방연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 충청남도의 발전전략과 미래상

충남의 장기발전 비전 21은 충청남도의 국제교류의 환황해권 거점지역으로 그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한반도 통일시대에 국가발전의 중심축과 중부권 핵심 리더로서의 개발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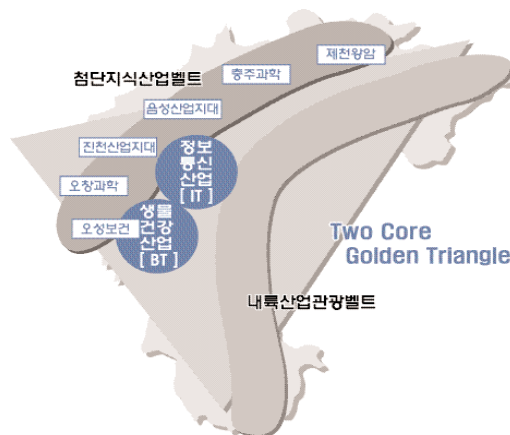
발전기본전략 Econopia 충남의 기본 전략으로 고생산성, 고부가 가치의 기술 집약형 첨단산업 육성에 두고 자립경제 구축을 기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전통문

화의 보존·계승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생태환경 네트워크의 구축과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균형복지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농 통합과 균형개발을 통한 러반토피아(Rurbantopia) 건설과 광역 및 권역별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역 개성화를 추구하며, 환황해권의 거점·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국제교류·첨단정보 스테이션 구축 전략 등을 강구하고 있다.



〈그림 10-8〉 Two Core Golden Triangle 개념도

자료 : 충청북도,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01.8), p.158



〈그림 10-7〉 첨단지식산업벨트

자료 : 충청북도,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01.8), p.157

충남의 주요 개발전략사업

가) '충남정신발양' 운동으로 정신문화 창달 : 충남 5대 정신인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정신을 시대에 알 맞게 승화 발전시켜 널리 보급해 나간다는 것이다. 추진 전략으로는 충남정신 발양운동을 선도할 충남정신 발양 추진조직체계를 구상하고 충남정신 발양 프로그램의 개발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동철학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현대에 부합하는 건강한 도민정신으로 승화해 가기 위한 상설 강좌의 개설도 구상하고 있다.

나) 환황해권 거점의 '장항인텔리전트베이' 조성 : 장항을 환황해권 거점, 해상정보교류, 국제화도시로 육성하고,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텔레포트 도시로 개발하며,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미래형 신업무지구를 조성하라는 것이다.



<그림 10-9> 충남의 4대권 개발경영사업 구상도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충청남도, 21세기 충남장기 발전 비전(1997), p.895

다)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는 '첨단산업·물류단지' 조성 :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하이테크산업의 공급기지로 구축하고, 다양한 산업입지의 공급, 산업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을 실시하며, 해양 및 내륙의 물류 중심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라) 국토의 심장 '고속철도역세권' 개발 구상 :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과 직주근접 배치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화를 도모하며, 연계교통체계 구축 및 소생활권 단위 확보 등을 2011년까지 3단계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마) 선진농업을 실현하는 '충청남도 농업종합센터' 조성 : 농업종합센터를 전통 농업지역으로 공유지가 확보된 예산군 일원에 조성하여 미래 충남농업의 메카이자 산실로 육성하고,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바) 국제적 휴양지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 안면도를 서해안권의 관광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4계절형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수도권 및 중부권의 관광수요에 맞추는 동시에 국제적인 해안형 리조트 휴양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국내 경제와 연계한 민간 외자자본 도입에 의한 투자재원조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사) 세계화를 향한 '환황해권 국제협력거점' 개발 : 환황해권 중심 자치단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여 도내 기업 동북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공동 관심사 및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조사·개발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아)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충남정보종합센터' 구축 : 각 부문을 수평적으로 연계·통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교류를 촉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산업·대학·연구기관의 정보 연계 및 교류를 촉진하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자) 미래의 신산업 '충남 멀티미디어벨리' 조성 : 충남 북부권 산업 중심지에 입지를 유도해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고,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편리한 교통을 최대한 이용해 대외 경쟁력의 향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의 기본 구상으로는 백제 역사유적의 발굴·정비와 관광개발시설 확충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 개발하며 공주·부여의 역사문화 관광기능과 예산·청양의 온천휴양 관광기능, 서해안의 해양 관광기능을 연계하여 복합 관광지대로 육성하고 도로교통망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3. 행정수도 이전과 충청권

1) 입지적 위상과 추진방향

(1) 입지적 위상

국토의 중심성 국토 공간상 중심적 위치는 기하학적 공간중심, 인구분포의 중심, 산업분포의 중심, 지역총생산의 중심, 교통시간대의 중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남한을 대상으로 할 때 기하학적 공간위치, 인구 및 산업의 중심은 크게 분산되지 않아 세 중심의 위치는 80km의 범위에 포함되며, 그 범역은 충청권에 속한다.

충분한 인프라시설과 개발잠재력 충청권에서는 경부선, 호남선 철도를 비롯하여 육상교통의 기반이 되는 각종 고속도로가 구비되어 있다. 충청권의 중심으로 경유·분기하거나 시·종점을 갖는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대전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이 각 방면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해안의 주요 항만을 연결하게 될 대전~당진고속도로, 공주~서천고속도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 환황해권과의 신속한 접근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물류와 관련해서도 조치원·부강지구 내륙거점 기능의 물류센터가 확보되어 전국 각 지역의 물류기지, 유통단지과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지역적 중립성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바 정치적 또는 문화적 이해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상대적으로 중립성과 갈등구조에서 보다 자유롭고 타 지역과 상대적으로 문화적, 정치적 갈등구조가 비교적 완만한 충청권이 신행정수도의 입지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2) 추진전망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지원하고 있으며, 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

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실무 업무를 전달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이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자료조사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위치, 지형, 생태·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요하기 때문에, 2003년 6월까지 도상조사(현장조사 전에 지도나 위성사진 등을 놓고 하는 조사)를 마치고 6월 하순부터는 관계 기관과 함께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올해 말까지 D/B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행정수도기본구상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객관적인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전문 연구기관, 학회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용역단에게 ‘신행정수도의 기본구상’과 ‘후보지 선정기준’에 관한 용역을 의뢰한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광범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2003년 말까지 기본구상과 후보지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 입법예고 특별법안에서는 추진위원회·추진단 등 추진기구,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재원조달 방안,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사업 추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 : 2004년 하반기 2003년 말까지 마련된 입지선정기준 및 평가 기준에 따라 2004년 상반기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 실시하면서 보완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2004년 하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실시계획수립 2004년 말에 입지 예정지역이 결정되면, 예정지의 인구규모, 토지이용계획, 환경 및 교통계획 등 신행정수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2007년 상반기까지 용지매수 절차를 밟으면서 건물의 규모·층고·배치 등 구체적인 도시설계를 결정하는 실시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표 10-6] 신행정 수도 건설사업의 추진계획

시행연도	사업 추진 내역	기간
2003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 설치, 건설기획단 구성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	1년 이내
2004	하반기 입지 선정	2년
2005	용지보상 및 도시설계	5년
2007	상반기 용지조성 및 착공	3년
2010	입주시작	?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입주 2012년부터는 중앙 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주민들의 입주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 충청권 수도이전 파급효과

(1) 인문·경제 기대효과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따른 고용과 인구의 변화는 단순히 충청권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그 파급효과는 전국토 공간상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인구 및 고용효과를 초래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의 충청권 이전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고용 및 인구증가, 둘째 증가된 고용과 연관 관계가 있는 산업에서의 고용 및 인구증가(간접효과), 셋째 직접 및 간접효과로 인해 증가한 인구의 자연적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한 변화, 넷째 자연적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해 변화한 인구를 지원하는 산업에서의 고용변화, 다섯째 인구지원산업 고용변화에 따른 인구변화 등이다. 예컨대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 2030년에 48만 여명의 인구와 약 8만 3천 개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인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행정수도 이전으로 증가된 충청권의 인구 및 고용의 3/4 정도는 수도권에서 그리고 나머지 1/4 정도는

[표 10-7]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충청권의 인구와 고용증가 효과

년 도	고 용				인 구				
	직 접	간 접	기 타	총고용	직 접	간 접	기 타	자 연 사 회 증 가	총인구
2015	17,000	35,616	3,416	56,032	57,800	121,094	11,613	29,524	220,032
2020	17,000	35,616	9,316	41,932	57,800	121,094	31,675	71,775	282,344
2025	17,000	35,616	17,813	17,000	57,800	121,094	60,565	132,727	372,187
2030	17,000	35,616	30,176	17,000	57,800	121,094	102,598	201,006	482,498

자료 : 조수종(2003),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북지역 파급효과, p.173, 「신행정수도 건설방안과 기대효과」에 관한 세미나, 충북개발연구원 · 한국동서경제학회 · 21세기 지역포럼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신행정수도 사업비는 37조 3,250억원이며, 이 중 공공부문의 투자비를 7조 3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아래 행정수도 이전이 충청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그 결과는 보면, 2007년~2020년 간의 국내총생산은 47조 81백억원~48조 41백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토목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007년~2010년 기간의 국내총생산은 25조 81백억원~32조 10백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8] 신 행정수도 건설의 국가 및 지역성장효과 (단위 : 조원)

	2007~2010	2011~2015	2016~2020	2007~2020
전 국	25.81~32.10	9.74~15.13	6.57~6.86	47.81~48.40
수도권	9.91~12.37	1.90~4.25	1.07~1.19	15.34~15.35
중부권	5.41~6.64	5.26~5.92	3.85~3.90	15.24~15.75
호남·영남권	10.49~13.09	2.58~4.96	1.65~1.77	17.22~17.32

그러나 신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되면 행정수도로 연결되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동반될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권의 인프라 부족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적 영향으로는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행정수도에 집중적인 교육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충청권의 교육여건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세계화 시대의 충청권

1) 동북아시아의 충청권 위상

21세기는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한·중·일 3국에만 유럽연합의 4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과 고속철도 등 하늘과 바다와 땅의 물류기반도 구비해 놓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그림 10-10〉 동북아 시대의 충청권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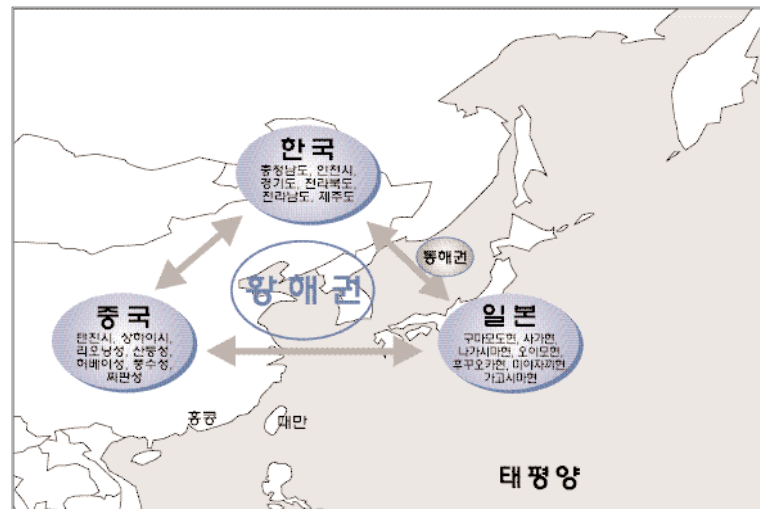
입지적 측면에서 볼 때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서해안의 관문항을 보유하고 있어 환황해 경제권 내 교류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 내 관문항 기능을 수행할 군장신항, 보령항, 아산항은 황해연안 관문항인 중국의 대련항, 청도항과는 300km 정도에 불과하여 입지적 차원의 높은 교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충청권내 관문항 주변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대전·청주 광역권, 안산만 광역권, 군산·장항 광역권 등 21세기 국가발전의 선도적 거점형성이 기대되며, 대 중국교역을 위한 관문항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0장

2) 충청권의 세계화 전략

환황해권은 황해를 중심으로 한국의 충청권 등 6개 지역, 중국의 허베이성 등 7개 지역, 일본의 구마모토현 등 7개 지역이다. 국가차원에서 볼 때 환황해권 경제거점 형성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산업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강구하고 환황해권 지역 내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분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에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국제분업에 대비한 산업단지를 서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춰 충청권은 세계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상하고 있다.

물류거점 형성 충청권이 21세기 환황해권 물류거점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북부 신산업지대 배후지역에 국제적 물류거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환황해권 내 지역간 수출입품을 서울, 인천, 부산 등을 통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직류하기 위해서는 3항(port)의 연결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배송하기 위한 지역별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이 같은 국제물류거점 형성을 위해서 지역대학에 물류관련 학과의 개설을 통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그림 10-11〉 환황해권의 범위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21세기 충남장기 발전 비전, (1997), P.82

교통·정보거점 형성 21세기 한반도의 새로운 발전축인 서해안 교통축을 수용하고 산업, 기술, 문화에 관한 정보교류를 촉진하여 환황해권의 교통·정보의 거점을 형성한다. 환황해권 정보거점 조성의 일환으로 북부 신산업지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정보 거점도시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보시스템과 정보인프라스트럭처 확충, 정보화 도시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지대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관광수요 등에 대비한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여 대중국 및 환황해권 거점공항으로 개발하며,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서해안 중부지역의 정보화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

대전광역시의 환황해권 네트워크 구상 대전광역시는 연구개발에 생산기능이 추가된 동북아 지식기반 생산도시를 발전목표로 동북아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의 큐슈 지역, 러시아 기술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 중국의 환황해 연안부 지역과 동북 3성 등을 타깃 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과의 교류활성화 및 상호 협력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환황해권 벤처마켓, 산업기술 설명회 등을 상설 개최하는 방안과 함께 상호 유기적인 동북아 경제·기술 협력이 가능토록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별도의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덕벨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IT산업을 중심으로 먼저 환황해 지역에서 무역투자, 산업교류, 인적교류, 국제물류 분야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뒤 범위를 넓혀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